

전주대, U리그 왕중왕 결승행

안동과학대와 준결승전서 2-1 승리... 내일 동의대와 결승전

전주대학교가 18일 경북 영덕군 청포해맞이 구장에 열린 '2021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전에서 안동과학대를 2-1로 꺾고 4년 만에 왕중왕전 결승에 진출했다. 4-1-4-1 포메이션의 전주대는 최전방에 최시온 미드필드에 장승현 김경수 심요셉 이기준 허리에는 이정윤 수비라인에는 유예찬 김동현 최성우 이요셉으로 구성하고 윙키퍼는 1학년 김성권이 골문을 지켰다. 전주대는 전반 초반부터 거칠게 상대를 압박

하며 전반 4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주장 장승현의 프리킥이 안동과학대 골키퍼에 막혔으나, 골키퍼가 처낸 볼을 공격수 이기준이 헤더로 연결해 1대0을 만들었다. 긴장을 늦추지 않은 전주대는 첫 득점 후 10분 뒤인 전반 14분, 최시온의 드리블 돌파에 이어 낮은 크로스를 김경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두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 막판 후반 45분에 안동과학대의 헤더 골로 1실점 했으나,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어

전주대의 2-1 승리로 마무리됐다. 전주대는 조선팀을 4-0으로 몰리친 동의대를 상대로 오는 20일 오전 11시, 영덕군민운동장에서 2021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을 치른다. 한편 2021 U리그는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축구대회로 2021년에는 85개 팀이 참가해 전국 대부분의 대학팀이 참여해 경기를 펼치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권역별 리그가 실시되고, 11월에는 권역별 리그 우수 팀이 참가하는 왕중왕전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가 18일 경북 영덕군 청포해맞이구장에 열린 '2021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전에서 안동과학대를 2-1로 꺾고 4년 만에 왕중왕전 결승에 진출했다. 사진은 전주대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MBC에브리원 '맘마미안' 출연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이 MBC에브리원 예능물 '맘마미안'에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맘마미안은 스타가 출연해 엄마 손맛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엄마가 만든 음식과 엄마 손맛을 재현한 요리사 음식 사이에서 추리하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다. 방송인 강호동 이수근 아나운서 이해성이 MC를 맡는다.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00m에서 대한민국 수영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 광저우 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200·4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과거 박태환은 어머니 밥심 덕분에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 /뉴스

고진영, LPGA투어 리더스 톱 10 선정

올 시즌 '12회' 진입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 고진영(26)이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톱10에 가장 많이 진입한 선수로 선정됐다. LPGA 투어는 18일(한국시간) 고진영이 이번 시즌 18개 대회에서 톱10에 12회 진입해 2021 시즌 리더스 톱10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종엔 4차례 우승과 2차례 톱3가 포함돼 있다. 고진영은 10회씩 10위 안에 든 리더야 고(뉴질랜드), 패티 타와타나깃(태국)을 제쳤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시상하지 않았다. 고진영은 LPGA 투어를 통해 '2019년에 이어 2년 만에 리더스 톱10을 두 번 연속 수상하게



패 영광'이라며 "플레이를 계속해서 잘했다는 뜻인데,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수상을 하게 됐고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더스 톱10은 2018년 처음 수상을 시작해 첫째 엔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이 수상했고, 2019년과 올해는 고진영이 받았다. 고진영은 상금 올해의 선수 등 주요 부문 타이틀에도 도전 중이다. 한편 고진영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뉴스

'손흥민 몸값 1137억원'

대륙별 최고가치 선수 선정돼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아시아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로 선정됐다. 축구 이적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가 18일(한국시간) 대륙별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를 발표했다. 아시아에선 손흥민이 8500만 유로(약 1137억원)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로 뽑혔다.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톱 클래스로 꼽히는 선수다. 세계 최고 무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수년간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2015년 토트넘 홋스퍼에 입단해 헤리 케인과 함께 이젠 팀에 없어서 안 될 선수가 됐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37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두 시즌 연속 10골-10도움을 달성했고, 개인 통산 리그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선정 올해의 팀에도 올랐다. 울버루에는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이번 시즌 정규리그 4골 1도움으로 득점 랭킹 공동 6위에 올라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에서도 지난 17일 이라크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6차전 원정 경기에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해 A매치 30호골을 기록했다. /뉴스



유럽 대륙에선 프랑스의 축구스타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가 1억6000만 유로(약 2140억원)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다. 음바페는 세계 최고 명문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남미에선 브라질의 네이마르(1억 유로·1337억원)가 리오넬 메시(이상 파리생제르맹)를 제치고 최고 가치 선수로 평가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선 이집트의 메시로 불리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1억 유로로 최고 가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오세아니아 대륙은 뉴질랜드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번이다. 그의 가치는 800만 유로(약 107억원)다. /뉴스

태권도진흥재단, 법률자문사 선임

법무법인 로고스 김건수 대표변호사 장승준 변호사, 법률 자문 맡기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건수)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했다. 18일,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진행된 법률고문 위촉식에는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법무법인 로고스 김건수 대표변호사, 장승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로고스 김건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0여 년간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앞으로 김건수 대표변호사와 장승준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김건수 대표변호사는 "로고스는 다양한 법률 영역을 다루는 24개 팀과 7개 자문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



소장, 법무부장관, 대법관 출신 등 138명의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 태권도진흥재단 발전과 국가 태권도 활성화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로고스로부터 재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과 추진력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기자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생명 힐빙밸리의 중심지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부안군 BUAN-GUN